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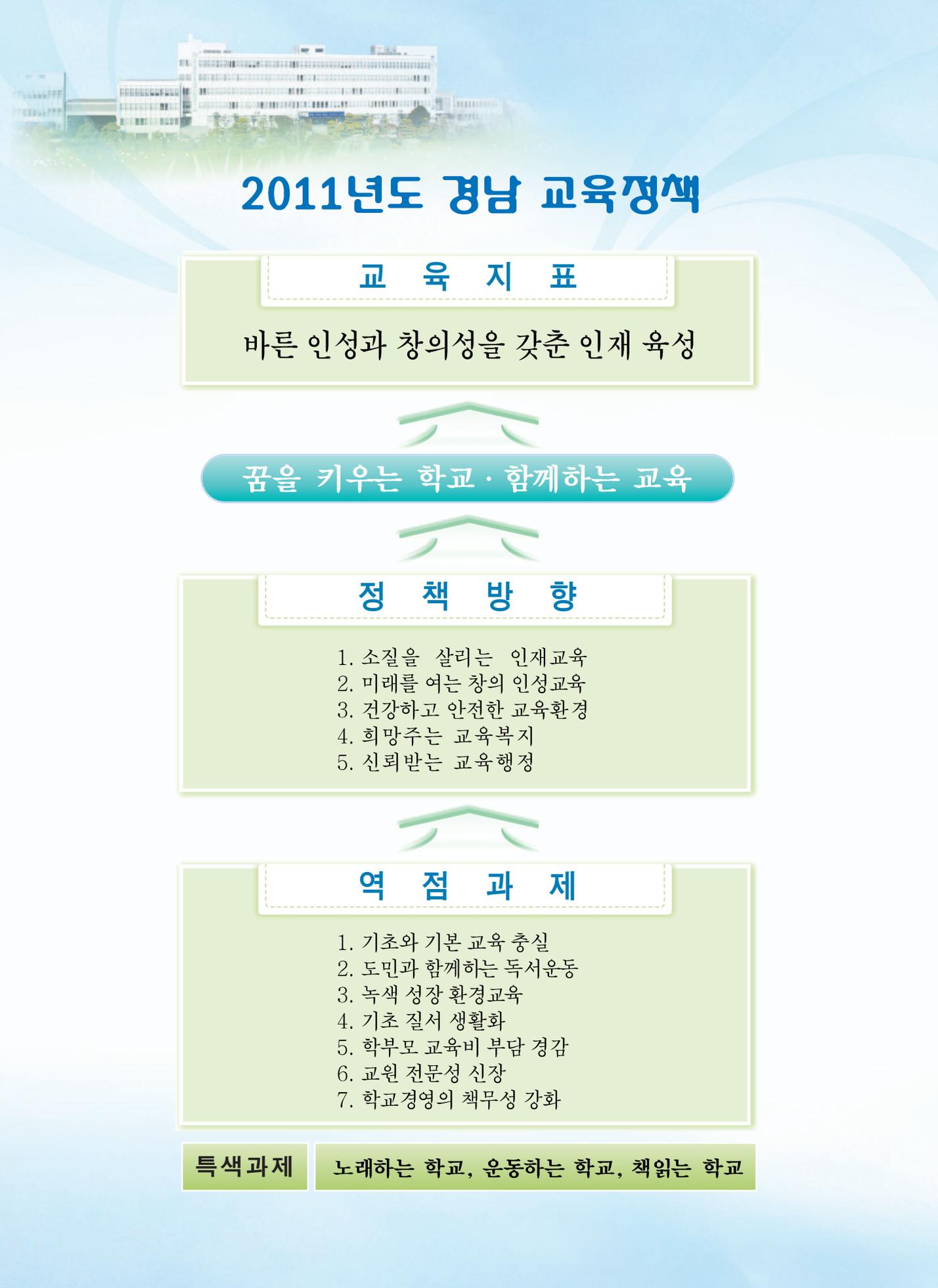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장학월보

2011 9  
제223호(통권442호)

- 장학특집 / 꿈을 키우는 독서교육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초대석 /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9

제223호(통권 442호)



02 권두언

• 우리 교육, 스마트 시대를 열어갑니다 / 고영진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 교육 / 이혜숙

08 특집 /  
꿈을 키우는  
독서교육

• '책 읽는 경남'은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으로부터! / 양원철

• 9월 '독서의 달' 경남 도내 공공도서관 활동 / 이명자

22 좋은 수업 다지기

• 학교도서관에서 놀며 공부하기 / 손민정

• 학교도서관에서 즐겁게 책 읽기 / 김희봉

•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는 프로젝트 수업 / 이수현

29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겸겸교육 / 정운영

• 창의성을 키우는 프랑스의 예술 교육 / 윤수영

35 명품학교, 명품교육

• 태블릿 PC로 공부하니 학교생활이 신나고 즐거워요! / 강준실

• 통합인증카드로 자기 학습력 쑥쑥 / 김성철

• 2011. 용산 타박술 가족독서 캠프 / 김동욱

• 독서교육 그 특별함, 그리고 행복을 느끼다 / 김정중

45 전문가 초대석

•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 고영실

48 초등예능교실 현장

• 자연과 함께하는 창의미술교실 / 김옥자

• 리코더에 날개를 달자! / 강연정

• 판소리 창법을 배워 '비토 수궁가' 부르기 / 김두환

54 참여마당

• 교 원 - 교육 & 사회복지 / 손인규

— 경남교육행복카드로 동남아를 다녀오다! / 신학순

• 학부모 -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을 바라보면서 / 옥명숙

63 향기나는 서가

• 「창가의 토도」를 읽고 / 양미

65 지상갤러리

• 경북궁 / 안종국

▶ 표지사진 - 박준일(구산초등학교교사)교장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0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9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9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우리 교육, 스마트 시대를 열어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장마에도 자연은 가을을 재촉하며 결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실이 익어가는 향기와 덜 여문 곡식에 살이 차는 소리가 더위에 그리고 생활에 지쳐 축 처진 어깨를 곧추 세워줍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교문도 교실 창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가치 있는 각오가 이번 학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해가 갈수록 교육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 본연의 목적과 방법에서 교육수요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을 늘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스마트 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형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을 구축하자는 의미입니다. SMART교육은 Self-directed(자기 주도적), Motivated(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 Free(풍부한 자료), 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 활용)을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인한 부담과 인성교육의 부재,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선생님의 디지털 환경 적응능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며 당혹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마트 교육의 핵심내용들이 예전에 우리가

실천해 오던 교육활동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화 된 환경의 제공이 변화로 느껴집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의 문제는 현재 우리 학생들의 휴대전화 보급률 71.3%(2008년 기준)와 저소득층에게 대한 정보통신 교육 지원예산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인성교육의 부재 문제는 스마트 교육의 순기능 강화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글자, 이미지, 동영상 등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읽고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읽기 소양 평가(DRA)’에서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37개교가 ‘우수하다’는 평가결과를 얻었습니다. 2009년 열린 이 대회는 16개 OECD회원국과 중국,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지털화 된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과 책임감이 더 절실히 요구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교육은 교사가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의 조력자로 변화해야하고, 학교가 지식을 대량으로 전달하는 장소에서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장소로의 진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풍부한 콘텐츠를 교육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미래는 창의성과 감성이 중시되는 ‘개념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료와 정보를 단순히 구분하던 ‘정보화 시대’와는 달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육의 방법 혁신을 위해 선생님들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고객, 학생들은 우리가 어른으로 자람을 멈춘 지금 이 순간에도 쉼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3-



04-



05-



06-

- 01 독도사랑 체험활동 참여 및 독도교육 선언문 발표
- 02 고구려 문화유적 탐방단 출발 격려
- 03 동아리농구대회 선수 격려
- 04 베트남문화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 05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동참
- 06 특수교육혁신추진협의회 개최



07—



08—



10—



09—



11—

- 07 김해교육지원청 - 교육마술연수
- 08 경남유아교육원 - 스토리텔링으로 열어나가는 언어생활
- 09 낙동강학생수련원 - 2011년 진로체험캠프
- 10 경남산천유학교육원 - 2011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
- 11 창원교육지원청 - 컨설턴트 역량 강화 워크숍

#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이혜숙

한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 손을 잡고 도서관을 찾아오던 예닐곱 살 된 남자아이가 뜨거운 햇볕이 원망스러운지 엄마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다.

“엄마, 더울 때는 시원한 얼음 옷을 입고 다니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

옆에서 들던 나는 독특하고 기발한 그 아이의 창의성이 격려와 여유가 없는 어머니 때문에 숨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지식과 기술들이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인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는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며 그 사람의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산출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힘은 창의성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창의성의 즐거움」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씨는 ‘인간에게 창의성이 없다면 칠판지와 별 차이가 없을 것’ 이라고 말하며 창조적인 사람의 요건은 전문지식, 창조적 사고 그리고 몰입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주위의 사물을 다르게 보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내어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검증하기 위한 열정과 몰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현대사회로 접어들어 부각되었지만 예전부터 발휘되어왔다는 것은 조선시대 유물인 자격루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발명품을 제작한 장영실의 과학 정신과 임진왜란에서 일본 수군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한 거북선이 보여준 전환제작의 기술혁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위대함에서 엿볼 수 있다.

그밖에도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서 보이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세계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아 우리들에게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을 체감한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렇게 창의적인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창의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도입되어졌으며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지적, 창의적, 심동적 기능을 골고루 갖추도록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지역사회가 보유한 물적·인적자원을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발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경남교육기부 홈페이지 'E-나누미(enanumi.gne.go.kr)' 오픈과 함께 4개(창원, 진주, 김해, 거제) 권역 '창의체험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부를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부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위한 꿈을 꾸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 교육공동체가 협조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바른 인성의 바탕 속에서 봉사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습관 형성과 어울림 속에서 새롭게 발상하고 체험하는 성취의 즐거움이 쌓여 창의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IT업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미국의 한 회사는 창의적인 아이폰을 생산하여 2분기 매출이 30 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진 인재가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도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경남교육은 교육기부로 다져진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된다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가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책 읽는 경남’은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으로부터!!



양 원 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흔히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 빌 게이츠의 어린시절 마을 도서관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독서 습관은 어린시절부터 형성해야 하며, 독서로 인한 풍부한 상상력과 지적능력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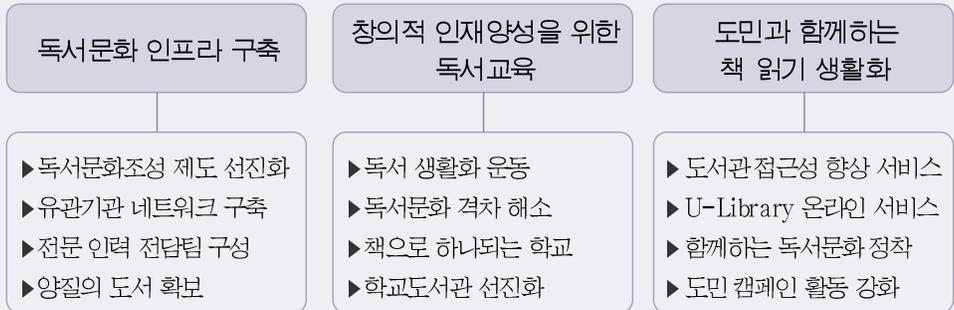
책을 읽는 활동으로 두뇌 세포가 활성화되어 상상력을 무한하게 자극하며, 책을 통해 바른 인성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책 읽기는 바른 학습습관을 형성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며, 풍부한 상상력과 독해력을 길러 개인의 지적능력을 신장시켜 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Dream Society를 지향한다. Dream Society에서 국가의 발전은 바로 창의성과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가진 십자형(+) 인재의 육성과 활용에 좌우되며, 개인의 삶의 질이 행복의 척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미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서는 개인의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문화활동이며, 다방면의 지식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국민들의 독서를 위해 이미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어린시절부터 독서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독서의 습관화와 생활화는 학교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경남 도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도민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I. 도민 독서운동 추진 개요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은 세 가지 분야에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II. 주요 추진 내용

### □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 ○ 경남학교독서교육조례 제정

- 2011년 2월 10일 공포
- 2011년 5월 10일 시행

- 내용 : 독서연구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운영예산 확보 등
- 제정 의미 : 기관장과 관계없이 정책 추진,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독서 선진국가 방문 및 벤치마킹

- 방문일시 : 2011. 1. 11~1. 13(2박 3일)
- 방문지역 및 기관 : 일본의 독서타운인 이바라키현 다이고마치, 도쿄의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 벤치마킹 내용 : 아침독서활동, 인구 20,000여 명인 다이고마치 공공도서관의 학교지원 활동, 보건소의 영유아 대상 Book Start 운동, 공공도서관의 학교지원 활동

#### ○ 독서교육 Network 구축 : 6개 위원회 64명 조직·운영

#### ○ 독서운동 참여 기업 및 단체 : 10개 단체 및 기업 참여

### □ 창의적 인재양성 독서교육

#### ○ 독서생활화 전개

- 다양한 독서활동 : 아침독서활동, 독서인증제, 초청강연회, 문학기행, 책 읽어주는 엄마 등 다양한 독서활동 전개
- 책과 함께하는 입학식
  - 기관명 : 창원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 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과의 협약으로 2011년 신입생들에게 책과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책 날개 입학식' 을 가져 민관이 함께하는 독서운동 전개

○ 독서문화 격차 해소

- 독서·논술 지원단 운영 : 중등교사 45명
- 찾아가는 농산어촌 논술 강좌 개설 : 9개교 완료
- 권역별 독서·논술 특강 개설 : 창원, 진주, 거제 3차 특강까지 완료

○ 책으로 하나되는 학교

- 스쿨버스에 서가 비치 운영 : 산청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의 면지역 학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배치 : 176명(전년대비 35% 증원)
- 학교도서관 활용 자료 발간 : 2종(‘즐거운 학교도서관, 신명나는 책 놀이’, ‘창의성을 키우는 책 만들기’)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독서교육 우수학교 도서관구입비 지원 등

○ 사제동행,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 190개 동아리 지원

□ 도민과 함께하는 책 읽기

○ 학교·공공도서관 접근성 향상 서비스

-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지정 : 14개교
-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 : 10개교
- 이동도서관과 도서택배 대출 : 500,000명 이상 이용
- 순회문고 운영 : 150개 기관
- 끝나르미 Book Bus 운영 : 창원, 마산, 김해 도서관

○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축 사업

- 사업비 : 270,000천 원
- 대상 도서관 : 창원, 김해, 창녕도서관
- 주요내용 : 학교-공공도서관 통합 회원카드 발급 운영, 통합검색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작가초청, 인문학의 밤 등 운영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 5개 공공도서관 지정 운영(창원, 김해, 통영, 사천, 창녕)

○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

- 독서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 24개 공공도서관(연인원 495,000여 명 참여)
-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Book Start활동 : 24개 공공도서관(483개 프로그램, 100,000여 명 수강)
-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 대상 : 18개 교육지원청
  - 내용 : 가족 독서 골든벨, 책임마들의 사랑 나눔, 가족 독서 한마당 잔치, 학부모 독서 교육 연수, 어르신과 함께하는 책 읽기 등
- 찾아가는 독서설명회 실시
  - 단체 : 창원, 마산 현모회, 바르게살기운동 경남본부, 여성능력개발센터, 경남여성단체협의회 등

- 학교 : 황산초, 천성초, 동산초, 하동초, 남강초, 마전초 등
- 내용 : 독서의 중요성, 자녀 독서지도 방법, 독서운동 참여방법 등
- 독서토론회 개최
  - 일시 : 2011. 7. 15
  - 장소 : 진주교육지원청
  - 참석대상 : 독서추진위원, 지문위원 16명
  - 내용 : 도민 독서운동의 전반적인 방향, 인식, 효과, 개선점 등
- 방송·언론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캠페인
  - 창원MBC의 독서운동 캠페인 전개
  - 창원MBC의 '책 읽는 경남' 기획뉴스 보도(매주 화요일 지역뉴스 시간)
  - CJ헬로비전(경남방송)의 독서운동 캠페인 전개
  - 경남CBS라디오의 독서캠페인 방송
  - 서경방송의 독서토론회 녹화 방송
  - 기타 도교육청 홍보 및 각 언론사의 독서관련 뉴스 등

### III. 향후 주요 추진 내용

#### □ 제1회 경남독서문화 축제 개최

- 기간 : 2011. 10. 14~16
- 장소 : 용지문화공원의
- 내용 : 독서관련 체험부스 운영, 북콘서트, 초청강연회, 시인초청 시인회 등

#### □ 교사 독서교육 동아리 공모 지원

- 대상 : 각급 학교 교사 독서교육 동아리
- 지원 동아리 수 : 33개
- 지원 금액 : 동아리당 1,500천 원

#### □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우수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 대상 : 147개교
- 지원 금액 : 4억4,100만 원(교당 300만 원)

독서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오프라인프리의 말처럼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은 학교독서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도민들에게도 책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도 전역에서 많은 참여가 있을 때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 9월 '독서의 달' 경남 도내 공공도서관 활동

이 명 자

창원도서관 사서과 운영기획담당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고 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경남도내 공공도서관에서는 풍성한 책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의 18개 시·군별로 54개 크고 작은 공공도서관이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도서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독서의 달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독서진흥, 체험활동, 독후활동, 전시·공연·발표, 강좌, 우수 이용자 시상 등이다. 거의 대부분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추천도서목록, 테마도서목록, 다독상 시상, 기념품 배부, 독서퀴즈 및 퍼즐 풀기, 가족영화상영, 책 교환전 등의 행사 외에 어떤 행사들이 운영되는지 간략히 소개해 본다.

책에 대한 정보, 책을 읽고 난 뒤의 독후활동,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활동, 책 문화 활동이 활짝 펼쳐지는 '9월 독서의 달' 로 흠뻑 빠져보자.



소개 순서는 18개 시군명의 가나다순 아래 해당지역 도서관 소개

◆ 거제시

■ 거제도서관 ☎637-6311

- 저자 초청강연회 “최종득 선생님”
  - 9.3(토) 오후 3시 초등4~6학년 대상으로 『쫄뜨기쌈 쫄뜨기쌈』 저자의 시 쓰기 강연 및 체험 활동
- 「책 읽어 주는 로봇」을 읽고 팝업북 만들기
  - 9.10(토) 오전 9시 30분 초등3~6학년
- 거제도서관 5년 베스트셀러 전시회
  - 9.1(목)~9.30(금) 종합자료실
  - 2006~2010년 매해 대출순위 1~5위의 인기 높은 책을 전시 소개
- 어린이 입체북 전시회
  - 9. 6(화)~9.30(금) 1층 북도에서 아름답고 흥미로운 입체북 전시
- 에코 독서가방 만들기
  - 9.24(토) 10:30 초등1~3학년 독서가방 제작을 통해 도서관 오는 즐거움과 독서 동기 부여
- ‘삶을 살찌우는 독서’ 핫이슈코너
  - 한 달 동안 종합, 어린이자료실에서 독서를 주제로 하는 도서코너 운영



■ 거제시립옥포도서관 ☎639-8250

- 1인 1책 더 읽기, 잡지 생명 연장 프로젝트 등

■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639-8261

- 독서교육 특강

◆ 거창군

■ 거창도서관 ☎944-8594

- 4행시 공모
- 마음이 행복해지는 미술치료
  - 매주(수) 10:00 시청각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940-8476

- <최다대출도서> 서평 전시
  - 9.1(목)~ 10.31(월) 2층 전시장
- 오디오북 모바일 서비스 체험
  - 9.17(토) 10:00~17:00 1층 로비
- 좋은 만화 전시회
  - 9.20(화)~9.27(화) 1층 로비
  - 만화공모전 수상작 전시
- 동극 공연
  - 9.24(토) 15:00~16:00 시청각실(3층)
  - 동구쟁이의 『난 무서운 늑대리구』 동극 공연

◆ 고성군

■ 고성도서관 ☎674-1007

- 독서감상문 공모전
  - 독서감상문, 감상화, 가족신문 공모
- 마음을 이어주는 책사랑 릴레이
  - 가족, 직장동료, 친지에게 책을 선물하고 돌려 읽도록 권장
- 계층별 독서동아리 OPEN 독서토론회
  - 도담도담, 책그릇, 참나회 독서회



◆ 김해시

■ 김해도서관 ☎320-5565

- 김해도서관에서 이무석 박사를 만나다
  -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저자 정신분석가 이무석 초청 강연
    - ◇ 작가초청 북세미나 9.16(금)
    - ◇ 작가 저서 및 책 속 한구절 전시
    - ◇ 작가와 공감 나누기 : 감상 글쓰기
- 독서사진 콘테스트 in 김해도서관
- 독서록의 달인 전시
  - 9.6(화) ~ 9.30(금) 어린이자료실(1층)
  - 100여 권 이상의 독후감을 꾸준히 기록한 독서록 전시



- [MOU체결]모범이용자 특별대출증 발급
- 김해도서관 모범이용자에게 인제 대학교 백인제기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대출증 발급
- 필독서 읽기~ 다행시 짓기
- 필독서를 읽고 느낌을 책 제목에 맞춰 다행시 짓기

■ 진영도서관 ☎345-1994

- 인형극 공연
  - 9.10(토) 13:30 1층 시청각실
- [체험활동]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 9.24(토) 14:00 1층 시청각실
- [특별 강좌] 음식으로 건강지키기
  - 9.27(화) 10:00 1층 시청각실
  -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소재로 잘못된 식습관과 성인병 예방에 대한 특강



■ 김해진영한빛도서관 ☎330-4831

- 그림책<할아버지의 시계>원화 전시회
  - 홍성찬 작가 소개
- 책나라 독서교실 - 초등2학년
  - '나만의 독서 포트폴리오 만들기' 주제로 다양한 독후활동 체험
- 성인독서회문학기행
  - 9.27(화) 박재삼 문학관 (경남 사천)



■ 김해장유도서관 ☎330-7480

- 환경 전시회
  - 9.19(월)~ 9.25(일) 지구촌 환경실태를 알리는 전시와 체험교실 운영
- 성교육 특강
  - 9.20(화) 10:00~12:00 시청각실
  - 성교육 방법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 내 아이를 위한 독서지도 강연
  - 9.22(목) 9.29(목) 10:00~12:00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의 도서 선택과 독후활동 지도를

- 위한 실전 강의
- 재미있는 그림책 세상
  - 9.24(토) 11:00~13:00
  -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
- 옹! 옹! 고집전!
  - 9.25(일) 14시, 16시
  - 공연장
  - 고전 '옹고집전'을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맞게 가족극으로 공연(김해색동어머니회)



■ 김해칠암도서관 ☎330-4591

- 제11회 김해시 학생 독후감 감상문 작품 공모
  - 9.5~10.31 초등4학년이상, 중고생
  - 지정도서 1권을 읽고 심사후 각 부문별 우수작 시상- 문집 발간
- (특강) 편안한 부모, 행복한 아이
  - 9.22(목)16:00~18:00 시청각실
  - 김홍숙(좋은벗 상담교육센터)
- 그림책 『연어』원화 전시회
- 신나는 동화체험 한마당- '동화야, 놀자' (김해시 색동회원)
- 소인형극, 동화책 읽기, 독후체험활동
- 책안의 보물을 찾아라!
  - 9.1~9.30 1층 어린이실



◆ 김해시립화정글샘도서관 ☎330-2991

- 예쁜 마음 가꾸는 동시 낭송법
  - 9.15,22,29(목)(3회) 16:00~17:30
  - 글샘배움터 I (3층) 초등3~4학년 동시 읽기, 동시 짓기, 동시 낭송하기
- 가족동극
  - 9.17(토) 14:00~15:00, 15:30~16:30
  - 5세~초등1,2 (부모 동반) (회당 80명)
- 빛 그림 동화교실
  - 9.24(토) 13:00~14:00, 14:10~15:10
  - 6,7세~초등3학년(회당 40명)

- 책 제목을 맞춰라  
- 9.5(월)~9.25(일) 각 자료실  
3개 자료실에 게시된 책 표지의 제목을 써서 응모한 후 당첨자 상품권 증정



## ◆남해군

### ■남해도서관 ☎864-5341

- 작가 초청강연회  
- 9.24(토) 16:00~18:00 평생교육실  
이원규 시인 초청 강연회
- 내가 추천하는 책 한권  
- 9.1~9.24 이용자가 추천하는 도서를 공모하여 좋은 추천평 작성자에게 상품권 증정



## ◆밀양시

### ■밀양도서관 ☎353-6977

- (제3기)노블레스 오블리주 독서산책  
- 9.21(수) 17:00~19:00 소극장(3층) 삼랑진읍내 학교·기관·단체장이 솔선수범하여 책 읽고 토론
- 삼랑진 독서릴레이  
- 삼랑진읍내 학교·기관·단체
- 도서대출권수 확대  
-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도서대출 권수를 5권으로 확대
- 인형극 공연  
- 9.30(금) 11:00 소극장(3층)
- 밀양도서관 5행시 짓기
- 1도서관 1학교 친구의 날 운영  
- 9.1(목)~9.30(금) 삼랑진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도서관 이용법 지도 및 독서체험활동
- 계층별 독서회운영  
- 9.8(금)~9.28(수) 독서회의실  
초등(드림스타), 중등(다크초콜렛), 고등(알바트로



- 스), 일반(채송화) 독서회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9.1~9.29 매주(목) 14:00~15:00 정신지체 장애아동 대상으로 동화구연, 손유희 책 읽어주기, 동요부르기, 율동 등



### ■밀양시립도서관 ☎355-5832

- 북화술(북소)  
- 9.25(일) 15:00~16:00 시청각실(5층)  
안재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북화술

### ■하남도서관 ☎391-1849

- 인형극 : 아빠가 된 늑대  
- 9.8(목) 10:30~11:30 시청각실
- '한가위 따라가기' 북아트  
- 9.17(토) 초등 5, 6  
추석 명절 관련된 전통문화 북아트
- '위인의 발자취를 따라' 밀양 탐방  
- 9.24(토) 초등5~6학년 대상으로 밀양 유적지 탐방
- 엄미랑 아끼랑 함께하는 종이접기  
- 9.24(토) 도토리나무만들기
- 도전! 출석왕  
- 9.1~9.30 어린이실  
연속 일주일 도서관 방문시 선물
- 도서관현장학습  
- 9.14~9.30 초등학생  
도서관견학 및 독후활동



## ◆사천시

### ■사천도서관 ☎853-8401

- 독서치료 특강  
- 9월중 사천관내 초·중등교사 대상으로 독서치료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 가을엔 편지를 쓰세요!  
- 평소 좋아하는 작가에게 책을 읽으며 느낀 점 등을 편지로 쓰기
- 독후감상문 모집  
- 9.1~9.30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독후감상문 모집, 참여 기념품 증정
- Library Academy 특강 실시  
- 9.7, 21, 28일 학부모교육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우리아이 성교육, 대상관계 부모교육 특강



■삼천포도서관 ☎835-4436

- (특강) '공부의 神 자기주도 학습법'  
- 9.21(수) 김용진 박사 초청 강연  
주제 : 초고속 전뇌학습법(좌뇌, 우뇌, 간뇌 계발을 통해 고도의 집중력과 잠재된 전뇌능력을 깨워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21세기형 학습법)
- STOP! 만화책  
- 어린이자료실 대출도서 중 3권 모두 만화책이 아닐 경우, 더블마일리지 적립
- 북트리 만들기  
- 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소원을 적어 북트리 장식
- 삼천포도서관점수는요~10점 만점에 몇 점?  
- 도서관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산청군

■산청도서관 ☎973-2544

- 팝업북 만들기  
- 9.10(토) 초등5학년 ~중학생  
동물 캐릭터가 있는 재미있는 팝업북 만들기
- 아동문학작가 초청강연  
- 9.24일(토) 14:00~16:00 시청각실



◆ 양산시

■양산도서관 ☎385-7004

- 독서치료목록V발간  
- 상황별 독서 치료 목록 발간 및 배부
- 꾸러기 e-한자왕 선발대회  
- 9.24(토) 14:30 초등학생들의 웹콘텐츠 e-한자퀴즈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이용자 독서성향 및 운영실태분석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011. 한 도시 한 책읽기 선정도서 작가초청강연회  
- 9.25(일) 15:00 시청각실  
올해의 선정도서 「비림이 사는 껍다리집」 황선미 작가 초청 강연
- 농치기 아까운 도서관  
- 9.20(화)~9.30(금) 서가에 숨어 있는 농치기 아까운 도서 전시



■웅상도서관 ☎379-8596

- 영어 복화술 공연  
- 9.03(토) 14:00~14:50, 15:30~16:20  
영유아 동반학부모 대상으로 딸랑이의 아빠가 집안의 쓰레기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인형극
- 책 속 보물찾기  
• (특강)나는 가치 투자다  
- 9.17(토) 15:00~17:00 투자정보 강의  
왜 워렌버핏처럼 투자해야 하는가?
- (특강)MBTI 성격검사로 예측하는 나의미래  
- 9.24(토) 10:00~14:00 초등4~6학년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성격 파악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
- 책 느낌 세 줄!  
- 9.15(목)~9.30(금) 자신이 추천하는 도서의 느낌을 3줄로 요약, 우수작 상품
- 원화전시회  
- 길벗어린이 원화 『뜨고 지고』전시
- 연체자에게 희망을!



- 9월 독서의 달 행사기간 동안, 연체된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는 이용자에게 대출정지를 해제해 줌으로써 장기연체자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 제공

## ◆ 의령군

### ■ 의령도서관 ☎572-0941

- 노인카툰 작품전시회
  - 9.3(토)~9.30(금) 백산갤러리
  - 노령자 인식개선을 위한 카툰 20점 전시
- 손뽕짜짜! 동화구연(복스타트+)
  - 9.3(토)~9.24(토) 10시~11시
  - 18~36개월 영유아가 책과 친해지도록 엄마와 함께 동화구연, 물감, 손유희의 즐거운 놀이 프로그램
- 책 먹는 내아이(복스타트+)
  - 9.3(토)~9.30(금) 의령군거주 0~36개월 영유아에게 그림책, 영아손수건, 스케치북, 크레파스를 담은 꾸러미 배부
- 책이랑 놀아요
  - 햇살공부방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독서미술 프로그램 운영
- 2011. 책 읽는 가족 시상
  - 9.10(토) 오후 2시 공공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도서관 협회로 부터 인증서/현판 시상
- 도서관나들이(1일 현장학습)
  - 9월~10월 어린이실에서 도서관 이용법 지도, 동화 읽어주기
- 쿵! 덩덕쿵 옛이야기
  - 의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옛 이야기 독서프로그램운영



## ◆ 진주시

### ■ 진양도서관 ☎761-2722

- 상황별 그림책 전시회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가 로알드 달의 작품 전시
-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인물 전시
- 가을 영화 여행 : 청소년 독서회원

### • 부모교육특강

- 9.30(금) 10:00-시청각실
- 자녀를 위한 두뇌 교육 특강 II

### • 대상관계 부모교육훈련

- 9.70~12.21(매주 수) 10:00~

\* 주제 : 행복한 내 자녀와 함께 걸기

\* 내용 : 강의, 토의, 과제로 부모 자녀간의 관계 개선을 유도함



### ■ 진주시립도서관 ☎749-2490

- 법킨아트
  - 2011.9.24 서부도서관 시청각실
- 「봉주르 뚜르」원화전시
  - 연암도서관 1층
- 「세계 도서관 기행」전시
  - 연암, 서부, 어린이 전문, 도동 어린이, 비봉 어린이 도서관에서 각각 시행
- 인형극 공연-9.17 어린이 전문 도서관



## ◆ 상녕군

### ■ 남지도서관 ☎526-1491

- 감동의 책속 한 구절
  - 감동적으로 읽은 책 속 한 구절 전시

### ■ 창녕도서관 ☎532-9501

- 역사속으로~ 첨병
  - 9.21(수) 우리나라 역사 및 철학의 개념이 숨쉬는 안동 탐방
- 1일 현장학습(찾아가는 동화배달부)
  - 9월~11월 관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찾아가서 동화구연과 독후활동



◆ **창원시**

■ **마산도서관 ☎241-9301**

-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 공모전
  - 9.6(화)~9.25(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화를 공모 받아 부문별로 선정하여 시상
- 매일 매일 독서 트레이닝
  - 9.6(화)~9.30(금) 중,고(150명)
  - 독서관련 문제를 문제집 형식으로 제작하여 풀이보게 하는 방법으로 정답자에게 기념품 증정
- 『팔죽할멈과 호랑이』 원화 전시
  - 9.14(수)~9.30(금) 1층 문화갤러리
- 몸 튼튼 마음 튼튼 -복화술 인형극-
  - 9.17(토) 유아·초등 저학년(150명)
  -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복화술로 공연
- 단추의 변신
  - 9.24(토) 초등(40명)
  - 단추를 재 활용하여 예쁜 머리띠 만들기
- 작가와의 특별한 만남
  - 9.24(토) 청소년 및 일반



■ **마산합포도서관 ☎225-7441**

-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의 집
  - 9.17(토) 14:00~16:00 쿠키 클레이
- 구슬로 만드는 세상
  - 9.24(토) 15:00~17:00 대강좌실
  - 필러비즈를 이용한 사진액자 만들기
- 우리 아이 그림책 읽어주기
  - 9.7(수) 10:00~12:00
  - 그림책 선정과 읽어주기에 대한 특강
- 『일과 도구』원화전시회
  - 9.5~9.30 유아·아동자료실
- 『책 읽는 밤』 선정도서전시코너
  - KBS1 라디오 책 읽는 밤에 선정된 도서를 전시하고 주제별 대표도서 목록제공
- 토요일에는 도서관으로 오세요
  - 매주 토요일마다 연체자가 도서 반납시 대출 정지 일 해제

■ **마산회원도서관 ☎225-7473**

- 자녀 독서지도 특별강좌
  - 9.23(금)10:00~12:00
  - 내 아이를 위한 멘토링 독서법 특강
- 인형극 및 마술 공연
  - 9.17(토)14:00~15:00
  - ◇ 인형극 ‘아빠가 된 늑대’ 공연
- 창원시 작가 전시회 및 작품코너 설치
  - 창원시 출신 작가 10여 명 프로필 전시와 작품코너 설치

■ **진동도서관 ☎271-8144**

- 책 읽는 멋진 모습 경연대회
  - 멋지게 책 읽는 모습 사진으로 찍어 이용자 투표하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이용자가 직접 개인추천 도서를 메모지에 적어 게시 판에 전시하여 권하기
- 책사랑 이어가기



■ **경남점자정보도서관 ☎241-0023**

-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학기행
  - 9월30일 시각장애인 30여명과 함께 하동 탐방- 「토지」의故박경리 선생 문학기행
-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 매주(수)시각장애인의 기초 재활교육
-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 매주(월~금)시각장애인의 정보역량강화
- 작가와 함께하는 글 나눔 교실(문학강좌)-매주 1회
- 귀로 듣는 독서치료 - 매월2회
- 시각장애인 비리스타 양성 교육
  - 매주(금)



■ **성산도서관 ☎225-7403**

- 아동극 공연
  - 9.24(토)14:00~15:00 성산홀

- 가족체험행사
  - 9.25(일) 10:30~12:30
- 즐거운 구연동화
  - 9.23~24 유아 80명
- 도서전시회

### ■ 의창도서관 ☎225-7371

- 어린이인형극 '청개구리 이야기' 공연
  - 9.24(토) 11:00 다목적홀(4층)
- 토요일 동화구연
  - 매주(토) 오후2시 어린이실(1층) 어린이(30명)
- 도서요약서비스
  - 도서요약서비스 콘텐츠를 읽고 정답을 온라인으로 제출
- 점자도서전시회
  - 9.5(월)~9.14(수) 도서관로비(1층) 점자(리벨)도서, 촉각도서 등을 전시
- 세상에서 하나뿐인 집지킴이 만들기
  - 9.18(일) 10:30~12:30 다목적홀 초등1~3학년 학생을 둔 가족(30명)
- 북세미나
  - 9.21(수) 저자초청강연
- 책 속 행운 찾기
  - 9.1(목)~ 선물소진시 어린이자료실(1층) 대출실(3층)
- 문화교실수강생 작품전시회
  - 상반기문화교실 수강생 작품 전시



### ■ 창원도서관 ☎287-2870

- 소통의 책 읽기
  - 9.23(금) 10:00~12:00 별관Ⅱ세미나실에서 책과 소통하는 기술들을 배워봄
- 책으로 읽는 가을
  - 독서하기 좋은 가을에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인문학도서 서평전시
- 청소년 도서관나들이
  - 도서관이 용법 및 견학과 도서

- 작가 초청 강연
  - 9.24(토)13:00~15:00 「생산적 책읽기」저자 안상헌 초청 강연
- 책이 살아있는 책갈피 만들기
  - 9. 18(일) 11:00~12:30 유아~성인50명 「도서관에 간 사자」읽고 만들기 활동
- 창원도서관 독서 포토제닉!
  - 책과 독서에 관련된 사진 콘테스트
- 마음의 키가 자라는 독서미션!
  - '마음치유' 코너의 도서 10권 읽기
- 나도 책속 주인공
  - 9.6(화)~9.30(금) 별관Ⅱ 1층 로비 동화 속 포토존 운영
- 도서관에서 신나는 동시 따먹기
  - 9.17(토) 14:30~16:30 유아자료실 동시 관련 독후활동 및 동시창작
- 걱정 인형 만들기(종이공예)
  - 9.18(일) 14:00~16:00 6~7세 어린이 「겹쟁이 빌리」 책 읽고 인형만들기
- 인형극「금도끼 은도끼」공연
  - 9.24(토) 15:30~16:30 시청각실



### ■ 진해도서관 ☎225-7511

- 신기한 팝업북 전시
  - 어린이실에서 신기한 팝업북 전시
- 「구름빵」원화전시
  - 9.16(금)~9.30(금) 1층 어린이실
- 「도치의 모험」인형극공연
  - 9.17(토) 10:30~11:30 6층 다목적실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뮤지컬 형식의 인형극 공연
- 팔각북 만들기
  - 9.17(토)15:00~17:00 6층 다목적실 팔각모양의 북을 통해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평창에 대해서 알아봄



• 복화술 공연

- 9.18(일) 15:00~15:50 6층 다목적실  
미술과 복화술 공연을 통해 어린이 독서습관 함양

■ 동부도서관 ☎225-7531

• 신기한 팝업북 전시

• 「구름빵」원화전시

- 9.1(목)~9.14(수) 1층 로비  
원화를 전시하여 책에 대한 흥미 유발

• 환경북아트 만들기

- 9.3(토) 15:00~17:00 초등 전학년  
북아트를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 등 환경에 대해 알아봄

• 「똥장군 구리구리」 인형극 공연

- 9.24(토) 10:30~11:30  
건강을 위한 식생활 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인형극 공연

• 복화술 공연

- 9.25(일) 15:00~15:50  
미술과 복화술 공연을 통해 어린이 독서습관 함양

■ 진해기적의도서관 ☎547-0095

• 도서관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도서 분류별 놀이활동)

• 아픈 책들 모여라(훼손도서 전시)

• 나는야 책 의사(도서 수선)

• 도서관 풍경(사진 전시)

• 인형극, 작은 음악회, 도서관이용수기 공모전등

• 문화강좌

- 일반 : 천연화장품 만들기, 책바보(책토론 모임), 요가교실

어린이 : 세계 미술 거장들과 아이들, 원어민과 함께 보는 재미있는 팝업북, 신나는 과학 실험실, 독서와 미술, 독서 교실, 작가와 함께 하는 글짓기 교실, 사물놀이 교실



- 유아: 북스타트, 보너스동무(북스타트 후속모임), 모여서 놀아요, 책동무야 모여라, 노래로 배우는 한자  
- 주말 가족 극장,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동화책 속으로(책 읽어 주기)

◆ 통영시

• 2011년 통영시민 冊愛 빠지다, 열두 달 테마북

- 시립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연계

- 매월 테마 북 선정, 목록 배포, 독서 후기 작성, 테마북 관련 행사, 실적 전시, 시상

◇ 월별테마

◇ 7월: 여행과 모험

◇ 8월: 통영시민, 이순신에 빠지다

◇ 9월: 교육 - 아이와 부모사이

◇ 10월: 시 - 인생 고찰, 성찰, 통찰

◇ 11월: 심리 - 나를 찾는 여행

◇ 12월: 나눔 - 열린 가슴으로 세상품기

■ 통영도서관 ☎648-8091

• 樂書... Read tree

- 좋아하는 책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고 다 같이 이룬 낙서의 느낌으로 즐거운 책을 만들어 보자

• 통영 습지이야기

- 9. 24 광도천 하부습지

통영동서남북의 습지를 모두 아우르는 습지답사로 자연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한 생생한 자연학습

• 재생종이 만들기

- 재생 종이를 만들어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 유발



■ 통영시립도서관 ☎650-2550

& 통영시립산양도서관 ☎650-2500

• 독서통장마일리지

- 내가 하는 페이스 페인팅,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독서나무

## ◆아동군

### ■하동도서관 ☎883-0211

- 독후감상화 그리기
  - 9.17(토)14:00~16:00 초등학생
  - 독서 한마당 선정 도서 읽고 그리기
- 녹차 화장품만들기
  - 9.3(토)14:00~17:00 청소년, 일반
  - 녹차를 활용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 ◆함안군

### ■함안도서관 ☎583-6920

- 책나무(book tree) 만들기
  - 9.20(화)~9.25(일) 1층 복도
- 「지하철을 타고서」고대영 저자 원화 전시-9.16(금)~9.28(수) 1층 복도
- (제3회) 나는 영어왕 게임 대회
  - 9.17(토) 초등 3~6학년
- 내 고장 함안사랑 퀴즈
  - 9.6(화)~9.29(목) 우리고장 '함안'에 관련된 퀴즈를 출제, 정답자 5명 상품



## ◆합천군

### ■합천도서관 ☎932-0521

- 독후작품 뽐내기
  - 9.1~9.25 초등학생이상
  - 제7회 경남독서 한마당 선정도서로 감상문, 감상화, 가족신문 공모 및 시상
- 문학기행
  - 9.24(토) 9시~18시
  - 독서회 회원 및 모범이용자와 작가 문학관 견학 및 작품활동
- 어린이인형극
  - 9.9(금) 시청각실
- 북아트 체험
  - 9.9(금) 도서관 앞마당



## ◆함양군

### ■함양도서관 ☎963-3186

- 흩어져도 책 이름이 보인다
  - 9.24(토) 어린이 자료실에서 흩어져 있는 낱글자를 보고 연상되는 책이름 작성
- 책이름을 연결한 글짓기
  - 9.27(화) 책이름 지은이 등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책이름으로 연결한 글쓰기
- 책과 나무의 만남
  - 9.24(토) 초등학생 대상으로 책을 통하여 나무 곤충 만들기



# 학교도서관에서 놀며 공부하기



손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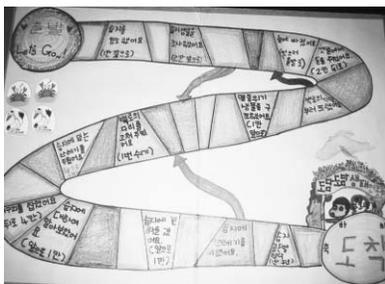
함안 가야초등학교 사서교사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는 곳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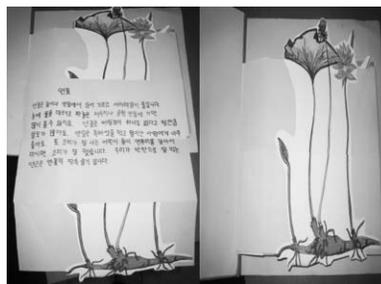
도서관이 어떤 공간이냐고 물으면 학생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구술활동이 더 활발한 초등학생들에게 정숙을 강요하기 전에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음악이 되는 것이 학교도서관이다.’ 라고 한 번쯤 생각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도서관에서 하는 도서관활용수업이야말로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본교에서는 자체 제작한 독서 기록장을 활용해 재량활동(독서) 시간에 도서관에서 수업을 실시한다. 필자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책놀이 수업’이다. 이는 매달 주제를 정하여 해당 주제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딱딱한 독후감 쓰기에서 탈피하여 책과 함께 놀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수업이다.

‘과학’을 주제로 한 달에는 본교를 배경으로 집필된 「습지를 지켜줘」라는 책을 읽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판 만들기를 해보았다. 2차시에 걸쳐 완성한 것인데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게임말로 이용하는 센스를 발휘한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습지에 사는 동식물을 조사하고, 북아트의 일종인 폴더북을 이용하여 1차시 동안 각자 하나씩 만들게 한 후, 모둠별로 결과물을 묶어 「습지도감」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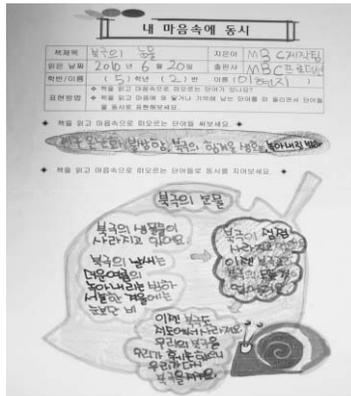


<게임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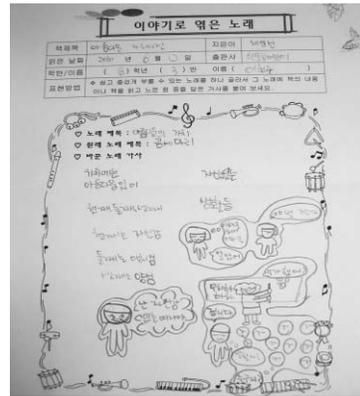


<습지도감>

‘시’를 주제로 한 달에는 다양한 시집을 읽고 책을 주제로 시쓰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시가 무엇인지, 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먼저 학습한 후 자신이 감명깊게 읽은 책의 줄거리, 자신의 독서 태도 및 다짐 등의 내용으로 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지용의 「향수」,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처럼 시를 노래로 만든 작품을 들려주고 동요나 가요를 이용해 음악으로 표현하게 하고 직접 불러보는 시간을 3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시 쓰기 수업〉



〈음악으로 표현하기〉

학기말에는 ‘책놀이 게임’ 시간을 가졌다. 한 학기 동안 활용한 책을 가지고 보물지도도를 만들어 보물책 찾기, 자음을 나열한 후 해당하는 책제목 찾기, 책제목에 동물이 들어가는 책 찾기, 책제목 스피드퀴즈 등 게임과 놀이를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책을 읽고 게임판을 만든 후 직접 게임을 하고, 책읽기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모둠원끼리 조사한 내용을 읽으며 도란도란 의논하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음악이었다. 게임의 답을 찾느라 도서관을 누비고 다니지만 아이들의 발소리 역시 소음이 아니라 음악이었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행복해하며 만들어내는 웃음소리야말로 최고의 음악이라 생각하며 즐거운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겠다.

## 학교도서관에서 즐겁게 책 읽기



김희봉

김해 영운중학교 사서교사

사서교사를 꿈꾸면서 학교에 가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도서관활용수업이었다. 도서관활용수업이야 말로 사서교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사서교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책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 현장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수업에 활용할 자료들이 부족하였으며 도서관활용수업, 선생님들과 함께 할 도서관협력수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먼저 학기 초에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교과서를 분석하고 선생님들께 미리 조언을 구해 수업에 필요한 자료나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도서관활용수업과 협력수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누구든지 도서관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이었다. 학생들에게 책이라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 생각 하고 편하게 생각 해야지만 도서관 활용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전교생 중 정말 책이 좋아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행평가로 책을 읽어야 할 때, 스스로 원해서 읽기보다는 평가를 위하여 읽는다. 제대로 된 도서관활용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료, 교사들의 인식, 사서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고 책을 원해서 읽고 자연스럽게 책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찾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적재량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즐거운 독서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에게 책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며 놀이처럼 즐기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강압적인 독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하지만 1주일에 한 시간의 수업시간으로 한권의 책을 읽히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책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책을 읽는다고 하면 지루해 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수업시간의 절반 정도는 책을 읽고 나머지는 같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그림책으로 이야기 하기

그림책이라고 하면 쉽고 단편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그림책의 숨겨진 의미를 더 잘 찾아낼 수도 있게 된다. 그림책은 책을 읽기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학생들에게 책에 더 친근하고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돼지책-앤서니 브라운」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학생을 시켜 책을 읽게 하였다. 큰 화면으로 책을 보니 학생들이 집중도 더 잘하였고, 친구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니 재미있어 하였다.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그림의 의미나 색의 변화를 함께 찾아보면서 책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 수업은 1, 2학년 남자 반, 여자 반에서 다 실시하였는데 모두 즐거워하면서 참여하였다. 책을 다 읽힌 후에 간단하게 학습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해 보았다. 어릴 때는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책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책 속의 의미를 끄집어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하여도 다른 반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데 먼저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한다. 토론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학생들의 생각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단, 토론을 하다보면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시끄러워지고 무질서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지도해야 한다.

「친구되기 5분전」은 내용이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또래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친구관계, 친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친구들과의 오해 등 지금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 책 내용 중에서 한 내용을 골라서 수업시간에 같이 읽고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처음에는 그림책 같이 쉬운 책으로 시작하여 차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읽히면 학생들이 책에 대한 거부감을 덜 가지게 된다. 책을 읽고 나서 무조건 학습지를 통해 생각을 쓰게 하기 보다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부담 없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독서수업이 학생들이 더 책을 싫어하게 만들고 책과 친해지기도 전에 책을 읽고 독서활동만 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업을 해 보면 책과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수업시간을 통해 그 학생도 책 한권은 읽었을 것이고 책이 있는 공간에 와서 책을 보기라도 했으니 독서의 시작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수업이 끝나면 서가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빌려가는 친구들, 도서관에서 읽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행평가나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책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도 많아졌다. 지금 당장 도서관활용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준비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수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서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유롭게 와서 책을 보고, 학생들이 읽고 싶고, 읽어야 하는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도서관 활용수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는 프로젝트 수업



하 수 현

양산 양산고등학교 사서교사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언제나 빡빡하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하는 수업 시간,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꽤 있다. 그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과 방법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선생님들과 함께 책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연구하게 되었고, 꽤 많은 과목과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여러 종류의 책을 활용한 수업, 즉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은 한 마디로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그동안 많이 접하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 신문 등에서 자료찾기〉

### 자연스럽게 세계 나라와 문화를 알아가다

국어과(작문), 사회과와 연계하여 '여행계획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 전체학생을 4명씩 팀을 나눠 자신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찾고 단행본, 정기간행물, 신문,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 [여행계획서 수업 활용 자료 예시]

- \* 980년대 지리 분야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음. 818년대 기행문도 활용할 수 있음.
- 단행본 : 국내 - 100배 즐기기 시리즈(국내편)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  
          국외 - Just go 시리즈 / 유럽에 빠지는 즐거운 유혹 등
- 인터넷 자료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 해외관광청 등
- 정기 간행물(잡지 등), 신문 자료 등의 자료를 모아서 관련 자료에 대한 안내와 접근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따로 모아서 제시하는 방법이 좋다.

미리 교과 교사와 사서 교사의 협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각 조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2명의 교사는 계속 학생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관심있는 곳을 찾게 되기 때문에 흥미도가 높고,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위치, 인근 나라, 축제, 문화 이야기와 더불어 위치와 교통편, 화폐 단위까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며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이 조사하지 않은 나라의 정보도 접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과정이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으며 직접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 직업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나의 진로를 탐색하다

최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난 후, '직업, 진로'는 학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인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접하고 자신의 직업을 정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진로와 직업과목 이외에도 기술가정, 국어 등 다양한 과목과 연계해서 '직업 보고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다른 수업과 같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직업을 미리 조사해 오면 관련 자료를 더 보완해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 [직업보고서 쓰기 수업 활용 자료 예시]

\* 326번째 사회과학(직업) 및 372번째 진로 교육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음

- 단행본 :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 1~5권 / 부키 전문직 리포트 / 직업 탐색 보고서  
공상이상 직업의 세계 / 멈추지 않는 도전 / 불멸의 신성 가족 등
- 인터넷자료 :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등
- 신문자료 : 매일경제홈페이지 [이 직업이 궁금해요] 중앙일보, 소년조선일보 외

독서·논술이 한층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주제를 몇 개씩 묶어 적게는 2~3차 시 많게는 1학기, 1년 정도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해도 좋다. 학생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는 법과 필요한 자료를 한 번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말하는 사례는 아주 일부이며 조금 더 넓게 공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차 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 은 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학생 생활 입력 유의사항	NEIS
----	---------------	------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훈령도 여러 차례 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이스로 전환되면서 2011. 3. 1.부터 훈령 205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훈령 205호는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던 훈령 158호를 이어 받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정을 한 학생생활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수상경력

### 훈령 205호(2011. 3. 1. 시행)

#### 제9조(수상경력)

-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삭제)
-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 ▶ 훈령 205호가 시행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상은 더 이상 일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상대장에는 교외상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교외상을 등재 신청하면 학생부 반영 여부에는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조회(상장번호순)										상장번호설정	개인/단체수상등록	삭제		
<input type="checkbox"/>	학년	반	번호	이 (수상대표명)	성명	교내/외	수상명	등급(위)	상장번호	수상일자	수여기관	참가대상	개인/단체 구분	결재
<input type="checkbox"/>	6	1	3	서성호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83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6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4	1	14	정영준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82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4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3	1	18	박진호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81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3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3	1	13	최안호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80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3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3	1	12	박진연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79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3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3	1	11	류소일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78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3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3	1	4	김건우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77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3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3	1	3	정희교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76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3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2	1	17	이호준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75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2학년	개인	완료	
<input type="checkbox"/>	2	1	14	이예나	교내	1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우 학력우수상	제2011-0074호		2011.07.20	화재초등학교	2학년	개인	완료	

- ▶ 수상대장관리에서 수상리스트에 체크박스가 비활성화(회색사각형)되어 있는 수상의 경우는 기안문서 상신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반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상대장관리는 시상계가 관리하는 메뉴로 학년반 권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학급별 수상관리의 경우 기존 교무업무와 달리 수상대장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학급별 수상관리에서 입력하는 수상의 경우는 학생부 반영 여부만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창의적 체험활동

### 훈령 205호(2011. 3. 1. 시행)

-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 린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추가)

- ▶ 창의적 체험활동은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2011학년도부터 1~2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메뉴로서 기존의 훈령에서 바뀐 부분과 첨가된 조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 훈령에서는 4개 영역을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205호에서는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4번째 조항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 3. 교외 체험 학습 상황



- ▶ 훈령 205호에서는 제 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조항이 전체 삭제됨에 따라 2011학년도 1~2학년부턴 순차적으로 적용됨으로써 2013학년도에는 이 메뉴가 사라지게 됩니다.

### 4. 진로 희망 사항

훈령 205호(2011. 3. 1. 시행)

제11조(진로희망사항) ①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 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삭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 ▶ 훈령 205호에서는 기존의 진로지도사항이 진로희망사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특기사항’ 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희망사항은 5~6학년만 적용받는 메뉴로서 훈령이 2011학년도부터 1~2학년 순차적용으로 인해 실제로 5~6학년이 적용받게 되는 것은 2013년도부터 바뀐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 창의성을 키우는 프랑스의 예술 교육

윤수영

창원 봉덕초등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창의적 인재 양성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 뿐만 아니라 창의성의 향상은 전 교육활동에 걸쳐 강조되고, 지향해나갈 교육의 방향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에서의 창의성 신장 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2. 창의성 교육은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의 열정과 창조의 기쁨이 살아 숨 쉬는 프랑스에서의 예술 교육은 어릴 적부터 미적 감각을 자극하고 개인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이러한 예술 교육을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창의성 교육 방법의 해답을 찾고 있다.

### 가. 모든 수업의 시작인 미술 수업

프랑스의 미술 수업은 여러 교과목의 수업으로 이어진다. 수학의 경우 대칭 교육을 위해 그림을 이용하고, 역사 수업에서는 예술사를 이용해 역사의 한 시점에서 행해지던 예술과 예술가들을 함께 배운다. 본격적으로 글자를 익히는 학습 단계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무 찰흙으로 글자 모양을 만들어 보거나 알맞은 이미지 놀이, 몸짓으로 표현하기 등의 미술과적 요소를 통해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 나. 학습자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질 높은 예술 수업

프랑스의 예술 교육은 학부모와 시당국의 재정적 지원으로 질 높은 수업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마다 예술 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워 전문적인 예술가를 초빙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에 초빙된 예술가를 통해 아이들은 예술가를 보다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며,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가의 작업 방식은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어 시청 정기 전시회에 공동작품을 전시할 수준에 이를 만큼 예술적 성장의 바탕이 된다.

#### **다. 아뜰리에를 통한 예술 수업**

프랑스에서는 정형화된 시스템 아래 죽어가는 창의성을 되살리기 위한 예술 교육 강화의 방안으로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인 아뜰리에에서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예술가와 학부모는 제 2의 선생님이라는 생각 아래, 단순한 관람으로 끝내지 않고 예술가의 시범을 보고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프랑스 어린이들은 아뜰리에로 나가 예술인들을 만나고 직접 예술 작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에 눈뜨고 있다. 예술가들을 좀더 친숙하게 만나고, 예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예술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라. 박물관이 학교가 되는 예술 수업**

프랑스에는 1,170여 개의 크고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다.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전시회가 열리는 세계적 미술관과 박물관은 예술을 만나는 공간, 미술을 체험하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로 제 2의 학교로 불리어진다.

세계적인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의 풍부한 자산을 어린이 미술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큐레이터의 친절한 안내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박물관이 따분하고 무거운 곳이 아닌 재미있고 친숙한 곳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아뜰리에 수업은 아이들이 작품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며, 더불어 박물관과 미술관을 좋아하고 자주 오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 속에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자라고, 예술을 이해하는 부모를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보다 값진 투자라고 여긴다.

#### **마. 학습자의 표현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미술 수업**

프랑스의 미술 교사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작품을 표현한 이유를 들 수 있으며, 아이들의 생각과 세계를 긍정하고 존중한다. 아이들이 그리는 선 하나에도 생각이 담겨있다는 생각, 아이들의 그림은 완전하고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프랑스 미술 교육의 핵심이다.

미술 활동을 통해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자신의 생각을 발산시킨다. 프랑스에서의 미술 수업은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신만의 표현력이 나타나고 창의력이 생긴다.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미술교육 - 소중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모든 아이들이 피카소가 될 수는 없지만 미술을 통해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의 감정으로 느끼며, 나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창의성이 싹트고 예술이 시작된다.

#### **바. 우리의 삶 곳곳에 존재하는 예술의 즐거움 느끼기**

프랑스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지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재미있고 즐거운 체험 속에 성장하길 바라며, 각각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믿고 기다려 준다. 이러한 잠재 능력의 발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예술을 어릴 때부터 접하도록 한다.

프랑스에서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즐거운 놀이로써의 예술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 속에 어렵고 지루한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 곳곳에 스며있는 다양한 예술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 **3. 나오며**

프랑스의 창의력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위해 예술가들의 개인 아틀리에와 1,000여개의 박물관을 열어주고, 학교와 집, 사회 전반을 통해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친근하고 즐거운 체험이 이루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은 자연스럽게 예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모여 창의력의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 바탕에는 아이들의 표현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어른들의 기다림의 미학도 함께 하고 있다.

## 외판섬 사랑초등 전교생 태블릿 PC로 공부하니 학교생활이 신나고 즐거워요!



강 준 실  
통영 사랑초등학교 교장

"우리 나라 연간 강수량을 조사해 보자"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본교의 6학년 학생 9명은 일제히 각자 소유한 태블릿 PC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제시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정리시간에는 'EBS 동영상 강의'로 복습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초등학교는 도서벽지의 외판 섬 사랑도에 위치해 있지만, 전교생들이 각자 태블릿 PC를 소지하여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무료로 다운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에 사랑초등학교 내지분교와 둔지분교가 '학력우수학교'로, 사랑초등학교는 '기초미달학생 없는 학교'로 선정되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상금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태블릿 PC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각자 1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 인터넷 망을 이용한 WiFi(와이파이) 접속으로 통신료 부담없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태블릿 PC는 낙도의 사랑 어린이들이 외부와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창'

사랑초등 전교생들은 학원 대신 집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EBS 동영상 강의로 예습·복습을 하며, EBS 출판 교재로 문제를 풀면서 학력을 다집니다. 또한 수업 중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으로 즉시 찾아 정보자료로 활용하며 자기 학습력을 키워 나갑니다. 또한 각자 소지한 태블릿 PC에는 국어 및 영어 전자사전 기능 '어플'이 무료 탑재되어 있으니 공부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망설임 없이 즉시 찾아봅니다.

또 어려운 수학공부를 하다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머리가 복잡해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감상하면서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환경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학교의 정규시간 학습과 방과후교육



01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6학년  
02 사랑초등 전교생  
03 MBC 뉴스에 소개

이 전부인 사랑 어린이들에게 태블릿 PC야말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단숨에 디지털 시대로 뛰어넘어 획기적 사고의 발상으로 정보화 시대를 리더할 수 있는 학습 기기 임에 분명합니다.

## 태블릿 PC는

### 제6의 감각기관으로 자기 성장의 학습도구로서 효용도가 진화되기 시작

사랑초등학교 전교생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하며 공부한지 4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벌써 어린이들은 다목적 학습기의 효용성을 학습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태블릿 PC를 ‘제6의 감각기관’으로 삼아 외부의 열린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창으로 스스로 공부하며 큰 꿈을 키우는 자기 성장의 학습도구로 활용도를 높여가는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05



06



04 MBC 뉴스에 소개

05 지역신문에 소개

06 동아일보에 소개

# 통합인증카드로 자기 학습력 쑥쑥



김 성 철  
거제 양지초등학교 교장

2011양지통합인증제											
양지초등학교						반      번      이름 :					
<b>영어인증제</b>						<b>졸업기인증제</b>					
번호	확인	번호	확인	번호	확인	급수	양면매기	구분매기	가위 바위 보	앞정었다 붙여매기	2면매기
1		9				동달	100	20	■	■	■
2		10				은달	200	40	16	■	■
3		11				금달	300	60	32	10	5
4		12				달인 (도전 목표)	400	80	64	20	20
5		13				확인	급수 :	달 ( / )	인		
6		14									
7		15									
8		16									
7급	( / )	8급	( / )								
	인		인								
<b>독서인증제</b>						<b>동시인증제</b>					
번호	확인	번호	확인	번호	확인	번호	확인	번호	확인	번호	확인
1		11		21		1		11		16	
2		12		22		2					
3		13		23		3		12		17	
4		14		24		4					
5		15		25		5		13		18	
6		16		26		6					
7		17		27		7		14		19	
8		18		28		8					
9		19		29		9		15		20	
10		20		30		10					
3급	( / )	2급	( / )	1급	( / )	3급	( / )	2급	( / )	1급	( / )
	인		인		인		인		인		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01



02



03



거제 양지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인증카드(독서인증제, 동시인증제, 영어인증제, 졸업기인증제)를 제작하여 한 눈에 도달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과정 속에 『기르자! 실력, 세우자! 큰 뜻』을 실천하고 아동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 1. 책 속에서 행복을 읽는 독서 인증제

짚어가는 신록의 싱그러움과 장미향의 상쾌함이 가득한 양지 뜰에는 학생들의 책 읽는 열기가 뜨겁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 도서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도서실 서가 중 '필독 도서' 라고 적혀 있는 곳에

01 독서인증제

02 독서인증제

03 독서인증제

학년별로 필독 도서들이 가득 꽂혀 있다. 학생들이 독서 인증제 목록을 보며 필독 도서와 권장 도서 중에서 읽을 책을 선정해서 읽거나 대여해 가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럽다.

본교에서는 중점특색과제 중 하나인 ‘친화활동을 통한 독서 습관형성’과 관련해 ‘책 읽는 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책 읽는 학교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 인증제’는 학생들이 그 학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책 읽기를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되며, 독서 활동 결과물은 담임 확인으로 인증카드에 기록한다. 각 학년별로 필독도서 10권, 권장도서 30권 이상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수별로 1급은 30권 이상, 2급은 20권 이상, 3급은 10권 이상으로 나뉜다. 읽은 도서 목록은 ‘양자통합인증제’라는 인증 카드에 누가 기록이 되어 학기말에 학생들에게 배부가 된다. 본교에서는 분기별 신간 도서와 필독도서, 권장도서를 구입하였고 현재 학생들이 활발하게 독서를 하고 있다. 독서 인증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책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파랑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04



05



06

## 2. 고운 심성을 기르는 동시 인증제

본교는 학교 특색 과제 중 하나로 ‘시 암송하기를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를 선정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동시를 듣고 읽어보는 기회를 통해 동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고운 마음과 바른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학기에는 교내 동시짓기 대회를 실시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표현해 봄으로써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학기에는 시의 재미와 맛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시와 친숙해지게 하기 위한 교내 시 암송·낭송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아침 동시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 암송이 이루어지도록 교실 뒤 환경판에 각 반의 동시 암송 스티커판을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외운 동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을 하였다. 동시 인증제를 실시한 결과, 동시 암송을 통해 아름다운 글귀를 자주 접하게 되어 언어생활이 순화되었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 지도에도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 04 독서인증제
- 05 영어인증제
- 06 영어인증제

## 3. Song&Chant로 FunFun!한 영어 인증제

영어 교육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영어를 교육함에 있어 재미와 흥미를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무턱대고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게는 다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지초등학교에서는 노래와 찬트를 통해 교과서 각과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을 익히고 즐겁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문장을 함께 외울 수 있도록 영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 노래를 부르며 영어와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하는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 인증제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인증제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 버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향상 되어 더욱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교실 벽면이나 환경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각 과의 주요 표현을 함께 게시하여 인증을 받고 내가 발화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교에 상주하는 원어민 영어 강사를 활용하여 언제든지 인증을 통해 암기한 구문을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었다.

#### 4. 몸도 마음도 튼튼 줄넘기 인증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색과제인 운동하는 학교의 일환으로 본교에서는 줄넘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한 도구의 사용 없이 어느 장소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줄넘기를 통하여 튼튼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줄넘기 달인 제도를 마련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함은 물론 자신감과 자기 신체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침활동, 쉬는 시간, 체육 시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제 카드에 기록하여 스스로 어느 위치에 도달 하였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줄넘기 방법으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07 줄넘기 인증제

08 줄넘기 인증제

## ‘손에는 책을 가슴에는 꿈!’ 스스로 꿈을 찾아 떠나는 어린 독서 여행가 2011. 용산 타박솔 가족독서 캠프



김 동 옥  
사천 용산초등학교 교사

‘책 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 가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22일(금요일)과 7월 23일(토요일), 1박 2일 동안 용산초등학교(교장 정운봉)는 책읽는 습관을 기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손에는 책을 가슴에는 꿈!’, 스스로 꿈을 찾아 떠나는 어린 독서 여행가’라는 주제로 ‘2011. 용산 타박솔 가족 독서캠프’를 개최하였다.

‘책읽는 학교’만 만들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일관된 독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행사에는 용산초등학교 학생 30여 가구, 전체 약 100여 명의 학부모, 학생이 참석하여 한 여름밤의 독서 열기로 더위를 날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텐트를 치고 저녁밥을 해 먹으며 가족간의 화목함을 더하고 이웃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마음을 터 놓고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참석자 전원은 용산 가족임을 자랑스러워 하였다.

특히, 전문가 초대석 코너에서는 삼천포 도서관 사서과장님이 오셔서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교육의 행복함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친구와 함께 한 독서 장기자랑 코너를 통해서 학생들 자신이 가진 끼를 부모님 앞에서 발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가족의 소중한함과 배려의 마음을 다진 사랑이 피어나는 불꽃마당, 부모님과 함께 교정이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른 독서 레크레이션 시간은 그동안 어리광만 부리고 나 밖에 몰랐던 마음을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은 평소 하고 싶었던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서로가 같이 나누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 드리며 자식된 도리를 돌아켜보는 계기가 되었다.

늦은 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오랜만에 TV나 컴퓨터를 벗어나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고, 이튿날도 계속된 북아트 활동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책과 가까이 하는 시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독서캠프에 참가한 이서영(5학년) 학생은 '평소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텐트 속에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잠자고, 부모님 발도 씻겨드리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부모님의 소중함을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말하며 다음에도 이러한 캠프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정윤봉 교장선생님은 "2011년에 처음 실시한 이 독서 캠프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우리 용산초등학교의 전통이 되고 이러한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함양과 함께 부모님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와 어울리는 생활 지도를 통해 인성이 갖추어진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커다란 기대를 갖지 않고 참가했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이라며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독서의 즐거움을 배운 우리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직접 온 세상을 두루 돌보며 삶을 배우는 여행가처럼 책 속을 여행하는 행복한 '어린 독서 여행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독서 교육 그 특별함, 그리고 행복을 느끼다



김 점 중

남해 지족초등학교 교사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학교별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범국민 독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본교에서는 2011.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독서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기본 환경을 만들어요

#### 가. 독서능력진단평가 실시

학생들의 정확한 독서능력 진단을 위해 한국독서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독서능력 진단평가지를 이용하여 독서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였다. 진단평가는 독서 준비도, 어휘력, 이해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도대책을 학급별로 수립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과 연계하여 독서지도를 하고 있다.



#### 나. 10분 책읽기 및 책읽어주는 엄마 활용

책읽기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10분 간 책읽기를 전개하고 있다. 점심을 먹은 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온 후 스스로 책을 읽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지족 독서 4대 원칙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4대 원칙을 살펴보면 '1. 모두 읽어요, 2. 날마다 읽어요, 3.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4. 그냥 읽기만 해요이다.' 이 시간에는 독후활동 등 부담을 주는 활동은 실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저학년울 위주로 책 읽어주는 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 읽어 주지는 못하였지만 엄마들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도 가끔씩 책을 읽어주어 사업을 지속시켜 나갔다.

## 다. 서점 체험학습 실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취지에 걸맞게 책을 구입하는 데 어린이들 각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음으로써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자 서점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2차로 나누어 실시한 서점 체험학습은 사전 학습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책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난 후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책 고르는 요령, 서점에서 지켜야할 예절 등에 대해서도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였다.

구입한 책에 대해서는 학급에서 가족과 함께 독서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독서 릴레이 가방을 구입하여 나누어 준 후 자신이 산 책을 가방에 넣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여 릴레이 행사를 추진 중이다.



## 2. 더불어 함께 하는 독서활동

### 가. 별빛 독서 교실 운영

학교 도서관을 학생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나아가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매주 화, 수,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별빛 독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 구입시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읽고 싶은 책들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도서를 대출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도서 대출증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 나. 학부모 독서 동아리 활동

4월 12일 책읽는 학교 만들기 출발식을 계기로 5월 11일(수)부터 학부모들이 모여 ‘독서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다. 2주에 한 번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함께 하는 책 나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들여다 보기도 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고 있다.



### 다. 가족 독서의 날 및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독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이해와 관심 및 독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을 중심으로 매월 4주를 가족 독서의 날로 정하여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평소에 읽은 책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이 함께 독후감을 쓰는 가족 독후감 쓰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 라. 책사랑 독서교실 운영

다양한 독서 행사 및 독후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아동들의 독서능력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꾀하고자 방학 기간 4일 동안 책사랑 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 독서 클레이, 북아트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독서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학기 동안 읽은 책을 중심으로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누어서 골든벨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진정한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문학적 감성을 드높이고 작가의 삶을 돌아보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동 의병주 문학관, 토지의 주무대인 최참판댁, 김동리의 소설 역마 배경지인 화개장터 등으로 문학기행을 실시하였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의 말씀이 생각난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 습관 형성을 통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족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고 영 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신지식인

독서란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글을 쓴 필자와 글을 읽는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독서는 인간이 개발하여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가치행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서라 할 때 우리들은 문자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문자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독서 주체가 문자를 읽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로 기록된 것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읽는 작용보다 이해작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도 독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독서에 대한 개념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독서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인간성의 함양을 꾀하게 되었다. 즉 알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독서를 저자와의 대화라고 한다. 저자는 자기의 내면적 사고결과를 모아 글로 표현하면 독자는 저자의 사고결과를 읽으며 자기의 생각과 비교하고, 공감하고 비판하고 체계화시키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간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독자는 보편적이면서 개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형성된다. 현대인이 올바른 독서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짐이요,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서지도를 한다는 것은 곧 현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된다. 학습이란 끊임없는 경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독서는 첫째, 학습의 용구로서, 둘째, 학습의 목적으로서 그 의의가 클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확충시키기 위한 방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시절부터 독서를 위한 바른 습관을 형성시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란 잘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활용하며 확산시켜 재구성할 때에는 거기에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가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기에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의 산업기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목표는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기주도적 학습(Do-It-Yourself Learning)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독서는 중요하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다.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을 도서관을 이용하며 꿈을 키웠고 독서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하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이다. 바로 지식이 부를 창조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전문가 안철수 박사도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으로, 책을 읽게 되면 책에 있는 글자라는 글자는 모조리 다 읽어 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읽은 책을 통하여 꿈을 키웠다. 초등학교시절 학교도서관의 3,000여 권의 책을 모조리 탐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 최고 기업의 창업자인 고이병철 회장은 해마다 신년 초에 일본에 가서 기업경영과 하이테크(고도기술)에 관한 책을 사서 읽고, 계열회사 사장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이른바 동경 구상을 하였다. 오늘날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바로 이병철 회장의 독서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나이에 음악가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청력상실의 위기에 직면한 베토벤! 거기다가 극심한 생활고에 봉착한 베토벤은 죽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유서를 썼다. 그 유서가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이다. 죽으려고 유서까지 썼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었다. 평소엔 책을 좋아했던 그가 유서까지 쓰고도 결행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언젠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자신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제 인생을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이 베토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책의 한 구절이 소리도 거의 듣지 못하고 생활고에 힘겨워 죽으려고 유서까지 썼던 베토벤을 구한 것이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를 잡아준 것이 바로 책이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많은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잊으려고 했다. 책에 빠지면서 그동안 나락 깊숙이 빠져있던 비참한 감정이 서서

히 사라지면서 죽음이 자신을 막을 때까지 신이 부여한 사명을 좇아 인류를 위해 창작활동을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자살을 포기한 이후에 제 3번 영웅, 제 5번 운명, 제 6번 전원교향곡 등을 작곡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까지 약 52년 동안 8,0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달리는 말 위에서도, 진지 안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는 그래서 '나의 사전 속에는 불가능이라는 세 글자는 없다'고 했던가? 그는 반생을 싸움터에서만 살았으면서도 1년에 160권 정도를 읽었으니 이틀에 한 권 꼴로 읽었다. 역사상 어느 나라 왕후장상치고 나폴레옹만큼 책을 사랑했던 이가 있었을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의 와중에서도 책을 읽었다. 독서가 코르시카 시골 촌뜨기를 왕따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그를 프랑스의 황제에까지 오르게 한 것이다.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두뇌가 좋기도 했지만 문화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세련된 무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는 모두 독서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독서를 하면 상식과 교양이 풍부해지고, 독해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공부도 잘 하게 된다. 그리고 행복해진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독서를 해야 한다. 베이컨은 "토론은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들며, 독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서는 중요하다.

매년 가을이 되면 독서의 달 혹은 독서주간을 설정하여 독서 캠페인(campaign)을 벌이곤 한다. 우리 조상들은 가을을 일컬어 燈火可親之節(autumn, a good season for reading)이라 하여 밤늦도록 책을 읽고 글공부를 했다고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讀書三昧境'에 빠졌다고나 할까? 책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생을 산 인물을 만날 수 있다. 논어를 읽을 때 공자를 만나고, 파우스트(Faust)를 읽을 때 괴테(Goethe, Johann Wolfgang von)를 만나고, 목민심서를 읽을 때 정약용을 만날 수 있다. 나폴레옹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고 베토벤을 불멸의 음악가로 변신하게 했던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있었을까? 시저(Caesar)가 동서남북을 점령했던 그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독서이다.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도 스토(Harriet B. Stowe)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uncle Tom's cabin)을 읽고 노예 해방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 권의 독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때론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 자연과 함께하는 창의미술교실



김 옥 자

창원 호계초등학교 교사

요즘 학교 현장은 학력 평가와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이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아무리 예체능에 뛰어난 기능이 있는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과에 밀려 쉽게 간과되기 쉬운 것이 지금의 예체능 교육의 현실이다. 그나마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라는 이름 아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색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미술은 예체능 중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낮은 교과라 생각된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호계초등학교는 경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학생들 중에서 미술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조사해 보면 한 반에 2~3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녹색 환경 미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야생화 한 포기 보기 어려운 도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환경 미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학년과 5학년 미술전담 교사를 맡으면서 여름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친화적 재료들을 이용해 창의미술교실을 열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미술교육에서의 많은 시사점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자연친화 미술교육의 중요성

미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하며,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심미안을 길러주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미술의 감상 능력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미술교육이 더없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사장은 조나단 아이브라는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인체친화성이 돋보이는 제품을 많이 디자인하여 오늘날의 애플사의 성공신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미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적 안목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먼저 본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중 소질과 흥미가 있으며 창의미술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각 반에 1명씩 선정하였다. 강사로는 미술교육에 오래 몸담아 전문적 소양이 있거나 대학원 등에서 미술을 전공한 실력 있고 우수한 교사를 초빙하였으며, 창의미술동아리 회원이 각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로 투입되어 수업 진행을 도왔고, 교사 연수도 병행하였다.

### 다. 프로그램 운영 모습

<p><b>【황토 염색하기】</b> ⇒ 황토, 소금, 두유, 염색대야, 소독저, 고무줄</p>	<p><b>【꽃잎 손수건 만들기】</b> ⇒ 꽃잎, 나뭇잎, 나무망치, 면 손수건</p>	<p><b>【명화 변형하여 표현하기】</b> ⇒ 광목, 퀼트천, 배접판넬, 아크릴물감, 붓</p>	<p><b>【종이인형 만들기】</b> ⇒ 한지, 파쇄종이, 스텔플러, 사인펜, 색종이</p>
<p><b>【꽃잎 그리기】</b> ⇒ 캔터지 배접판넬, 야생화, 비커 돋보기</p>	<p><b>【나무 곤충 만들기】</b> ⇒ 나무토막, 나뭇가지, 목공본드, 곶판지</p>	<p><b>【한지 부채 그리기】</b> ⇒ 한지부채, 먹, 한국화물감, 먹지, 전통문양지</p>	<p><b>【전각 만들어 명함에 찍기】</b> ⇒ 연석(돌), 전각칼, 명함지, 사인펜</p>

### 라. 프로그램 운영의 시사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실(미술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또한 교실 수업에서는 잘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재료와 활동 및 체험이 학생들의 자연친화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건이 허락하여 지역예술(미술)센터가 운영된다면 지역의 여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신나고 즐거운 리코더 교실 리코더에 날개를 달자!



강연정

통영 죽림초등학교 교사

### 1. 리코더! 그 비상을 꿈꾸며

2010년 초등예능교실에 대한 공모가 있었을 때, 평소 음악으로도 친분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리코더’라는 악기를 선택하여 예능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능교실 운영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이유에서 작년 이어 올해도 리코더 교실을 운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2. 리코더의 화려한 날개짓을 위해

#### 가. 소프라노반과 알토반을 운영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소프라노 리코더를 사용하지만 리코더의 다양한 음역대를 경험시켜주고 소프라노와 알토 리코더를 익혀 테너와 베이스 등의 다양한 리코더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소프라노와 알토반으로 분반하여 운영하였다.

#### 나.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하루에 5시간씩 총 20시간을 운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음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와 ‘리코더의 역사 및 소개’로 이루어진 특강은 리코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기에 충분했고 구입한 교재로 단계적인 지도를 했으며 친숙한 멜로디의 곡들로 다양한 연주형태를 연습시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초등학교 리코더 합주단과 교사 리코더 앙상블의 ‘초청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리코더를 접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열심히 연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 다. 아낌없이 주고자 노력하다

리코더 교실은 본 취지에 맞추어 통영시 소재의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인원수를 배정하여 희망자를 선발하고 학생들에게 개인별 교재와 리코더를 제공하였으며 틈틈이 간식으로 사기를 돋우기도 했다. 운영기간 동안 강사진이 모든 수업에 참여하여 부진한 학생을 도우는 열성과 함께 하루하루 운영에 대한 토의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고 귀가 문자를 발송하여 학생들의 안전에도 노력을 하였다.

### 3. 리코더에 날개를 달고

‘청출어람’ 이라고 했던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학생들의 완성도 높은 리코더 연주를 보노라면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소감록」에 쓰여진 “리코더 교실이 짧아서 아쉬웠다.”는 것과 “리코더에 대해 많이 배워서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려했던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흐뭇했다. 더불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었던 학생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리코더 교실 운영에 함께 열심히 뛰어 준 신한옥 선생님, 김한아 선생님, 제유경 선생님, 특강을 흔쾌히 맡아주셨던 정정애 교감 선생님, 운영 도우미로 함께 해 준 김노아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리코더 교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리코더에 날개를 달고 스스로 아름다운 음악을 멋지게 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개강식〉



〈초청연주회〉



〈작은 음악회〉



〈단체사진〉

## 판소리 창법을 배워 ‘비토 수궁가’ 부르기



김 두 환

사천 서포초등학교 교사

토끼 보고 무서라고, “아이고, 나 저 물 무서 못 가겠다! 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된대도 나 못 가겠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판소리! 이건 바로 서포초등학교 미래 소리꾼들의 수궁가 배우는 소리다. 수궁가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춘향가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와 함께 다섯 작품으로 오개(五歌)에 속한다.

별주부전의 고장인 이곳 서포초등학교(교장 최은재)에서는 학교특성화교육활동으로 지난 5월부터 주 1회 3~5학년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전수자이신 이윤옥 선생과 함께 하는 ‘수궁가’ 노래교실을 개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수궁가에 대한 전설이야기와 판소리 기초 이론을 익히고 직접 판소리를 배우는 것이 즐거워 학생들은 판소리 가락에 흥겨워 손뼉을 치기도 하고 일어나서 몸을 흔들기도 하는 등 우리 가락에 흠뻑 젖어드는 모습이었다.

이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예능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예능교실은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학생들의 참가 희망을 받았는데 3~5학년 대다수가 참가하기를 희망하여 2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능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흥겨운 판소리 가락에 흠뻑 젖어 더위를 잊고 열심히 배웠다.

예능교실이 끝나는 날,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한 학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포에 이런 전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서포에 살게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전설을 판소리로 배우니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세계화될수록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서포초등학교는 별주부 전설이 깃든 서포체육회와 별주부 그림 그리

기 활동 및 다매갯벌체험마을의 갯벌체험활동 등 다양한 ‘별주부전’ 체험활동과 ‘수궁가’ 노래교실을 통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설, 아름다운 갯벌에 대한 자긍심과 학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하여, 유능하고 주체성 있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서포 아이들은 세계화를 무대로 한 무한한 경쟁 속에서 자긍심과 주체성에 바탕을 둔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재 기르기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천신문
서포읍민지  
간이별 신문 소망
동화대

---

사이버사천 | 동화대(생활정보) | 사천시종합관광안내센터

최종편집 : 2011년 08월 24일 12:17      종합 | 자치행정 | 경제·정보 | 사회 | 문화 | 농·어업 | 교육 | 관광 | 스포츠

- 회사소개
- 광고구독
- 광고사할
- 기사재보
- 유머마당
- 그리운사람찾기

서포초등학교, 별주부 전설 『수궁가』 노래교실 열며



토끼 보고 무서라고, "아이고, 나 저를 무서 못 가겠다 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님대도 나 못 가겠다 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님대도 나 못 가겠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관소리!!! 이런 바로 서포초등학교 미래 소리꾼들의 수궁가 배우는 소리다. 수궁가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순창가와 심령가, 흥부가, 적벽가와 함께 다섯 악종으로 오가(五歌)에 속한다.

별주부의 고장인 이곳 서포초등학교(교장 최은재)에서는 지난 4일에는 『별주부 전설 깃든 서포체육』이라는 테마 아래 자라군, 토끼군으로 나뉜 체육행사를 가졌고 6일에는 3, 4, 5학년으로 구성된 『열수, 소리 한마당』 전구들이 무형문화재 관소리 수궁가 전수자이신 이흥숙 선생과 함께하는 『수궁가』 노래교실이 개강되었다. 이 날 이흥숙 선생으로부터 수궁가에 대한 전설이야기와 관소리 기초이론을 익히고 직접 관소리를 배웠는데 학생들은 관소리 가락에 흥겨워 손뼉을 치기도 하고 일어나서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리 가락에 흥백 질어드는 모습이었다.

사천교육지원청 예능교실 운영 계획에 의한 지원금과 자체 예산으로 한기 중 월 2.4주 금요일과 여름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수궁가』 노래 교실을 통하여 고장 특색을 이해하고 해안심을 가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영취지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노래를 통한 정서순화와 아름다운 성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학부모와 지역민을 초청한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며, 서포 고장의 전설이 담긴 『수궁가』 노래 교실이 계속적으로 열려가게 운영되어 학생이 즐겁고 신나는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05월 19일 11시 12분 / 교육

Copyright (c) 1999 동화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교육 & 사회복지



손 인 규

창원 웅동중학교 교사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안다고 한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학교교육을 빗대어 ‘학교 총이 탕탕탕!’이라 하는데 이는 다소 위기의 교육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안전하고 바람직한가? 현재 한국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오로지 학력향상만 추구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자아실현을 통한 올바른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볼 때, ‘기초부진학생 0%, 교과목의 높은 점수’만을 추구하는 반면 인성교육을 너무 등한시 한다는 것은 결코 교육의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방과후수업도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온통 교과공부에만 치중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도 뒷걸음질을 하는 듯 하여 몹시 안타깝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도 찾아보기 어려운 서글픈 현실이다.

한때, 미국은 러시아의 우주선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충격을 받아 영재교육에 몰입하여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정작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나라를 부국으로 만드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류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교육계의 방향은 다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뒤처짐 없는 학교’ 등에 투입되는 교육예산은 실로 막대하다. 그에 반해 교육적 성과는 아주 미미한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2010년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2008년 기준)에 의하면, OECD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너무 많아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24.1명, 중학 20.2명, 고등 16.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치인 초등 14.4명, 중학 13.7명, 고등 13.5명으로 교육의 질이 사뭇 떨어진다. 또, 한국의 초등 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0.0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보다 훨씬 높다. 갑작스런 학급총량제가 그 원인이란다. 시골엔 학생수가 부족한 반면에 도시에는 콩나물 교실로 다시 회귀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당국은 오히려 예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예전의 정숙한 아이들이 아니라 ADHD에 가까운 요즘 아이들을 통제하며 수업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의 학생 담당 부담을 최소화하여 교육적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재미 교육학 박사 현용수 님은 “우리 아이, 인성이 먼저다.”라고 역설한다. 참으로 새겨들어야 할 금언(金言)이다. 인성이 바르지 못하고 능력만 뛰어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일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답게 더불어 살지 못하므로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1위를 치달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등이다. 자살은 34분에 1명꼴로 1년에 무려 1만 5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 계층도 다양하다. 중고생, 명문대생, 해고 노동자, 노인 등. 이 지경이 되도록 국가와 교육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필자는 그 해결방안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첫째는 가정과 학교의 인성교육이 바로 서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이 맡아야 할 인성교육이 사라졌다. 맞벌이 부부들은 더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어린애를 남에게 쉽게 맡겨버린다. 자기자식을 바르게 키우기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한창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천륜의 정, 예절, 우애 등을 가슴에 심으며 자라야 할 시기에 온종일 낮모르는 사람의 품에서 부모를 그리다가 쌓인 부정적 감정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 역사, 종교, 고전, 효도, 고난, 철학, 사상 등을 중시한 과거의 전통문화 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이 자연스레 이뤄졌는데, 현대에 와서는 물질, 권력, 명예, 유행 등을 추구하며 인간의 참된 인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예의가 없어도 봐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로지 유행만 따르는 아이들을 격려하는 어

른들도 있고, 권력과 명예, 돈을 위해서는 정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이런 사회문제를 가져왔다고 본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외형만 번드르르할 뿐, 그 속은 온통 병들어 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선조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물질보다는 정신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교육계에서도 자각하고 인성교육에 열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신이 황폐한 인간이 능력만 뛰어나면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따돌림, 폭행, 이혼, 자살을 선택하진 않았다. 자신보다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기에 결코 그 행동을 가벼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요즘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므로 예전처럼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둘째는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예산이 꼴찌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최소한의 복지 책임마저 가정에 떠안겨 버린 것이다.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들은 빚쟁이로 각종 채무에 시달리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부담에 짓눌린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능력보다 인성이 바른 인간으로 길러야 한다. 자꾸만 늘어나는 이기적인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지 않는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부 국책사업에 국가예산을 탕진하지 말고, 국민들의 행복하고 참된 삶을 위해서 사회복지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들만 맘대로 살다가 어느날 훌쩍 사라지면 그만인 것처럼 살아서는 곤란하다.



## 경남교육행복카드로 동남아를 다녀오다!



신 학 순

밀양 미리벌초등학교 행정실장

경상남도교육청의 '경남교육행복카드 이용실적 우수 교직원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인 국외연수단에 선발되는 행운으로 7월말 동남아의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올해로 벌써 경남교육행복카드 국내외 연수 세 번째의 행운이다. 지난 2003년 밀양교육청 경리담당 근무 시 도입된 '경남교육행복카드' 사업을 직접 담당하였기에 행복카드의 취지를 알고 행복카드만 사용해 온 덕분에 2004년도 첫 복지기금 사업인 제주도 방문, 2006년에는 중국으로 그리고 올해는 동남아 연수단에 선발되었다. 2011년 국외연수단으로 선발되었다는 기쁨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등등 한껏 설레었다. 연수팀원중 행복카드의 제일 수혜자라는 정보가 흘렀는지 팀의 총무를 맡게 되었다.

팀원은 모두 17명, 초·중·고·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교직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함께 자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전자문서메일과 SMS 문자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한 번씩은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메일로 문자로도 충분히 연수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었다.

몇 차례 메일과 문자로 연수일정 확정, 방문국 선정, 여행사 선정, 예산 집행, 연수 준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외연수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출발은 2011년 7월 25일, 귀국은 7월 29일로 3박 5일간의 연수 일정을 시작하였다.

2011년 7월 25일 오후 6시 김해공항에서 연수팀들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밤 8시 30분 비행기로 방콕을 향해 출발했다. 5시간 넘는 비행 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2시에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 현지가이드를 만나 숙소를 향했다. 다음날 아침 6시 30분

캄보디아를 향해 출발, 일정대로 5시간 이상 버스로 달려 국경에 도착하여 급행 출국심사를 요청하여 캄보디아로 들어섰다. 국경을 들어서면서부터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경제적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경통과 후 시엠립으로 이동, 앙코르톰 관광을 시작하였다. 툽툽이라는 오토바이가 끄는 가마 형태의 탈것을 이용하여 바이온사원, 바푼온사원, 코끼리테라스, 타프롬사원을 관광하고 앙코르왓트를 둘러보았다. 캄보디아 하면 Killing Field만 떠올리는데 앙코르왓트를 보고 이들의 사상적 기반과 그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게 된 고대 부국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석조물의 그 웅대한 규모와 라마, 힌두, 불교를 아우르는 사상을 배경으로 당시엔 초강대국이었을 캄보디아지만 오늘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밀립 속에서 발굴된 후 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 ‘앙코르 유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원달러”를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임에도 거리에 나와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3일째인 7월 27일 오후 캄보디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버스로 5시간 달려 태국으로 돌아왔다. 7월 28일 둘러본 태국은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하여 놀라울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21세기의 블루오션 산업인 관광업을 발전시켜 1인당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방콕국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서, 방콕 시내의 고층 빌딩에서,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서, 멋진 해변을 개발한 리조트 조성으로 전 세계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을 보고 성공을 예측할 수 있었다.

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7월 29일 새벽 1시 비행기로 방콕공항에서 출발해 7월 29일 아침 8시 20분 김해에 도착하여 간단한 해산식으로 동남아시아 연수는 끝을 맺었다. 이번 연수를 함께 한 17명의 팀원들과는 학교간 정보교환은 물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등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난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둘러보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에 남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나라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 이번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자부심을 갖게 한다. 끝으로 ‘경남교육 행복카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교직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준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을 바라보면서..

옥 명 숙

거제 능포초등 2학년 정가나 학부모

요즘 통영이 슬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얼마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조심조심 전해 지던 이야기 속의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통영의 딸'이 북녘땅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지구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인간 생지옥으로 북한관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곳입니다. 수용소에서는 여자들이 생리를 해도 닦아 낼 천 조각 하나도 없으며, 가슴을 가릴 천이 없어 동물처럼 생활한다고 합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곳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히 동물화, 야생화되어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게 된다는 악명 높은 이곳에 <통영의 딸>신숙자씨(69)와 딸 해원(35) 규원(33) 모녀가 갇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통영시민들이 반드시 통영의 딸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통영 롯데마트, 현대교회)으로 달려 가보았습니다. 신숙자씨의 고향은 파란 파도가 넘실대는 통영입니다. 작곡가 윤이상, 그 역시도 파란 파도를 그리워하며 한시도 고향 통영을 잊어 본 적이 없다는 통영사람(산청군에서 어릴 때 통영으로 이사 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향이면서 신숙자씨는 피해자가 되었고 작곡가 윤이상씨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꼴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들에게 두개의 조국이 존재하여 빚어진 비극입니다.

윤이상의 아름답지 못한 권유로 평양행, 재입북을 거절하고 92년 서울로 돌아온 오박사는 자신의 입북 및 탈북과정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오길남박사는 1942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로 건너가 1985년 브레멘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박사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직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독일 유학 중 '민건회' 라는 재독 반한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고 1980년 독일로 정치적 망명을 했던터라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국내대학의 교수직 제의를 선뜻 받아 들이지 못하였고 당시 간호사였던 아내가 교통사고와 간염에 감염되어 요양중에 있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할 형편이었으며, 43세 나이의 그는 조바심을 내었고 어려운 상황에 북측공작원 고정간첩 김종한이 던진 미끼와 윤이상의 권유로 북에서 연구하며 가르칠 수 있는 경제학교수직과 아픈 아내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 해 준다는 달콤한 핏에 빠져들고 맙니다. 천권의 경제학서적을 챙겨 북에서 무겁게 가르쳐 보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입북했지만, 교수를 시켜 주겠다고 약속과는 달리 대남흑색선전에 이용되었으며, 공작원으로 전락하는 등, 북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원이 되어 독일로 돌아가 두 명의 유학생을 더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지만 오박사의 부인은 공작활동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내지 말것을 당부하며 곧장 탈출하여 가족송환을 요청하라고 했고, 아내의 뜻대로 독일로 오던 중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오박사는 그후 5년 동안 독일에 거주하면서 윤이상에게 그의 가족 송환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그는 그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재입북만을 강요합니다. 윤이상은 “주석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며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은 죽는 줄 알라”고 하였으며, 북한에 있는 부인과 딸의 수용소 사진과 육성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를 전하며 북한 복귀를 집요하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협박을 단호히 거절하고 92년 서울로 돌아온 오박사는 자신의 입북 및 탈북과정과 북에 남겨둔 가족의 이야기를 쓴 책을 펴내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노력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통영에 있는 한 교회에서 통영의 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을 빌려 북한정치범수용소 전시회를 열면서입니다. 이 전시회를 개최한 방수열 목사(50,통영시 동호동 현대교회 담임목사)는 우연한 기회에 북한정치범수용소인 요덕에 '통영의 딸'이 갇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전시회를 열면서 통영의 딸이 풀려나서 그리운 땅 통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현재 이 서명운동은 힘이 실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언론은 물론이며 방송3사 또한 이 사건을 이슈화하여 연일 보도했고, 교회 측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도 통영의 딸이 고향에 올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시회에서 만나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통영의 딸이 제발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랬으며, 친구를 구해 보겠다고 나선 신숙자씨의 동창들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우정도 보았습니다.

한편 저는 통영시 도천 테마 공원에 있는 윤이상 기념관에도 가보았습니다. 기념관의 2층에는 윤이상 흉상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만들어 보내 준 것으로 이곳으로 들여 올 때도 말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의 세계적인 훌륭한 음악작품만 놓고 그를 평가 할 수 있을지... 기념관에 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클래식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해서인지 동서양의 화합이 주제라고 하지만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불쌍한 '통영의 딸' 신숙자와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신숙자와 윤이상... 과연 음악처럼 용서와 화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통영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통영의 딸 세모녀 구출을 위해 팔을 걷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니 천만다행입니다.

통영의 딸, 그녀는 결혼식날 웨딩드레스도 입어 보지 못했고, 사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살아 있어 주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길남 박사님은 절규합니다. “나는 가족을 파멸로 이끈 바보였다. 나는 꿈에서 아내와 두 딸에게 호소한다. 짐승의 꼴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오길남 박사님, 울지마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 요덕수용소에 수감 중인 '통영의 딸' 세 모녀(신숙자, 오혜원, 오규원)  
위의 사진은 1991년 작곡가 윤이상이 남편 오길남 박사를 다시 월북하라고 회유하기 위해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와 함께 건네준 가족 사진이다



## 『창가의 토토』를 읽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자)



양 미

밀양교육지원청 현장지원협력과 교육재정담당

오늘도 아이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오늘은 뭐 할 거니?” “공부는 어떻게 할 거니?” 나도 모르는 사이 웰컴컴퓨터처럼 아이 주위를 맴돌며 지나치게 간섭하며 아이와 난 또 다른 갈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도대체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이와 나 사이의 갈등을 보고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지인의 권유로 『창가의 토토』를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 ‘토토’가 어린 시절 자신이 다녔던 도모에 학원에서의 삶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모로 독특했던 자신을 한없는 사랑으로 풀어주었던 고바야시 교장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그린 글이다.

초등학교 1학년인 토토는 주위가 산만하여 수업도 듣지 않고 참가에서 ‘친동야’라는 노래를 불러주는 아저씨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토토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데 새로 가게 된 ‘도모에 학원’은 여느 학교와 같이 철문으로 된 교문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자연적으로 꾸민 교문을 지닌 학교이고, 고물이 된 전철 여섯 량을 연결해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일본사회가 2차 대전에 휩싸여있던 시절, 토토처럼 ‘정상적인 사회’에서 버려진 50여 명의 아이들이 전교생으로 토토와 같이 학습 부적응 자도 있었지만 친구 다카하시처럼 왜소증이거나 타이처럼 외골수인 아이도 있었다. 정상적인 사회가 그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해 버린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고 차이를 인정한다. 차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영장에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구별없이 수영을 하기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스스로 정하게 하며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존중해주고, 현장에서의 야영, 여행 등을 통해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식이 아닌 습관으로 배우게 한다.

또한 운동회 상품으로 학용품이 아닌 시금치, 우엉 등의 채소를 상품으로 주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그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는 곳, 그래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학교 텃밭에서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을 따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고 햇빛이 따가운 여름은 나무그늘에 앉아 친구들과 노래자랑을 하였던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어 추억여행을 하였고, 잊고 지냈던 친구들과 고바야시 선생님보다 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다독여 주셨던 담임선생님을 생각나게 했다.

또한 토토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아이 편에서 서서 인내심과 너그러움을 보여 주었다. 흔히 자식 키우는 일을 나무를 심고 화초를 키우는 일에 비유하곤 한다. 행여 물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흙을 만져보고 햇볕과 바람이 더도 덜도 아니어야 하니 얼마나 손이 가고 마음 쓸 일이 많은지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물을 적당히 주는 일, 햇볕과 바람에 마음 쏠리며 어른의 생각대로만 자라게 둘 수는 없지 않을까? 사회의 잣대에만 기준을 맞추고 아이의 개성을 말살시키는 나를 보면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토토가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고바야시 선생님과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이었다. 교육은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라고 한다. 남들보다 못하거나 늦으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한다. 창의력이 분출되기엔 너무 급하다는 것이다. 아이가 서기를 기다리기보다 남들보다 늦지 않게 아이를 세워야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어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들 보다 못하지 않게 공부시키느라 아이와 공부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책에서는 온전히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한다. 큰 목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에 허리 굽혀 진심으로 귀 기울이던 고바야시 선생님의 굽은 등처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더 없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 이 물음에서 늘 자유롭지가 않다.

결국 우리 부모님들의 일치된 의견은 세상을 향해 당당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 세상에 기죽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 무엇보다 먼저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게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할 일일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숨기지 않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아이 교육의 반은 성공적인 출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꼭 잠자리에 드는 아이 곁에서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소리로 말해 주어야겠다.

“너는 잘 할 수 있어. 넌 최고다”.

# 지 상 갤 러 리

작품명 : 경복궁



---

---

안 종 국

- 현 경남은혜학교 교사

#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교육

도민 여러분!  
오늘은 TV를 잠시 끄고  
가족 독서 시간을  
가져 보는건 어떨까요?



- 책 속에 꿈 책 너머 희망
- 북(book)적 북(book)적! 경상남도
- 함께하는 책 읽기 함께여는 희망경남
- 펼쳐요! 책속 행복 누려요! 행복 경남
- 책 읽는 기쁨 나누는 행복
- 책을 내거월에 미래를 내품에

경남교육청 독서 홈페이지 및 SNS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남교육청 독서 홈페이지 '책 읽는 경남'  
▶ <http://reading.gne.go.kr/>
- 책 읽는 경남 facebook 계정  
▶ <http://www.facebook.com/gnedu>
- 책 읽는 경남 twitter 계정  
▶ <http://twitter.com/gnreading>